

KIND 방글라 협력센터 주간 건설·인프라 동향 보고(1.2)

1. 방글라데시 경제 동향

○ 방글라데시 환율 및 기준금리 추이

Source: <https://www.bb.org.bd/en/index.php/econdata/index>

구분	내용	비고
은행간 환율	110.00 Tk/USD (전주대비 0.00△)	'24.02 기준
기준금리	4% 유지	'23.11월 기준
월평균 시중금리	8.03% (전월대비 0.68△)	'23.11월 기준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은 아직 2023년 12월 금리 데이터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 방글라데시 국채 금리 추이(현지화 10년물 8.505%)

▼ 8.505 -0.00 -0.00%

출처: <http://www.worldgovernmentbonds.com/bond-historical-data/bangladesh/10-years/>

Yield changed +0.0 bp during last week, +0.0 bp during last month, +5.5 bp during last year.

Current Yield is close to **1 year maximum value**

Period	Change	Min	Range	Max
1 Week	0.0 bp	8.505 % Dec 26, 2023	No change	8.505 % Jan 2, 2024
1 Month	0.0 bp	8.505 % Dec 2, 2023	No change	8.505 % Jan 2, 2024
6 Months	0.0 bp	8.505 % Jul 2, 2023	No change	8.505 % Jan 2, 2024
1 Year	+5.5 bp	8.450 % Jan 2, 2023		8.510 % Jan 14, 2023

Current Yield: 8.505%
Last update 2 Jan 2024 0:15 GMT+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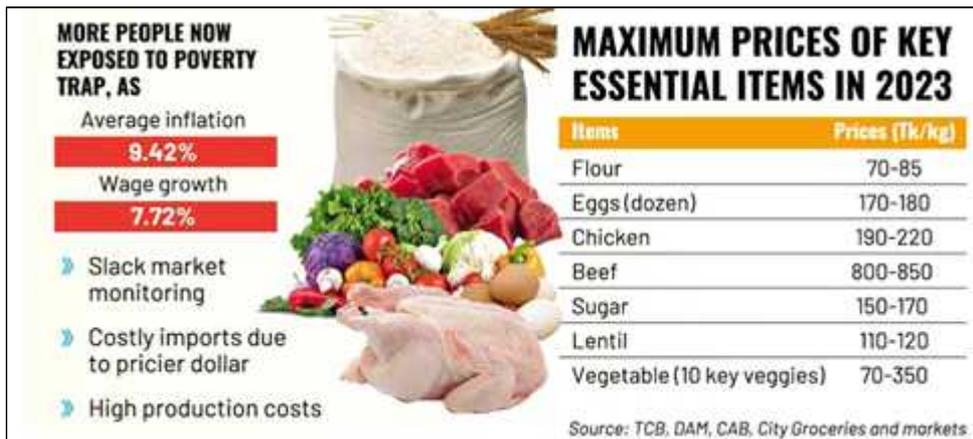
□ 중앙은행, 외환 순보유액 177억달러(IMF 기준 충족)

- 중앙은행의 12월 외환순보유액이 약 177억 달러에 달해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준치를 충족함으로써, 47억 달러 대출 패키지 중 세 번째 지급을 실행할 수 있게 되었음.
- 시중 은행에 석유, 가스, 비료를 비롯한 생필품 수입 의무를 이행하라는 중앙은행의 압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IMF의 기준을 충족하여 외환 비축분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결과임.

⇒ L/C(신용장) 개설이 되지 않아 물품 수입이 제한적이었던 상황이 지속되었는데, 이는 외환 비축분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음.

□ 핵심 필수품, 2023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 생활비 위기 심화

- 2023년은 방글라데시 저소득 및 중산층 이하 가구에겐 암울한 해로, 대부분의 필수품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음.
- 임금 상승률이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낮은 상황에서, 물가 압력은 코로나 여파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시민들에게 더 큰 어려움 가중.
- 쌀을 제외한 다른 모든 필수 식품 품목(감자, 양파, 계란, 설탕, 밀가루, 베이커리 품목 등)은 15%에서 220%로 가격 상승이 두드러짐.
- 정책대화센터(CPD)에서는 시장감시 기능의 취약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 식품가격 상승은 시장관리 부실과 연계되며, 글로벌 상품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에 가격하락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문제임을 지적.



2. 건설 · 인프라 시장 동향

□ BEZA, BSMSN의 갈증 해소를 위해 해수담수화를 계획

- 방글라데시 경제구역청(BEZA)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 지역의 지하수 수위 저하와 수원의 염도 증가에 따라 해수담수화를 시행함으로써 방글라데시 최대 산업지대인 BSMSN 지역의 담수 위기를 퇴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BSMSN는 담수화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위해 컨설턴트를 고용, 최종 결과물 도출까지는 1년 반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
 - 초기에 BEZA는 하루 3천만 리터의 담수화가 가능한 수처리 공장을 건설할 계획. 이 공정을 위한 용수는 차토그램의 미르사라이 지역에 있는 벙골만의 샌드위프(Sandwip) 수로에서 조달할 예정.
 - BEZA 당국은 11월 14일 "BSMSN에서의 담수화 공장 설립 타당성"이라는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컨설턴트 선정 입찰 절차에 착수.
 - 당국은 또 하루 5천만 리터 규모의 수처리 공장을 설립하고, 찬드푸르의 파드마-메그나-다카티아 강 하구로부터 150km의 파이프라인을 건설해 하루 5억리터의 물을 공급하는 등 다른 사업도 추진.
 - BSMSN 기본계획에 따르면 산업지역 전체에 대한 용수 수요 예상량은 2025년 하루 3억6400만L, 2030년 5억1600만L, 2035년 7억3000만L, 2040년 10억3300만L로 추정.
 - 이러한 수요 증가를 해결하기 위해 페니-무후리-실로니아 강에서 매일 1억 리터, 스플 페니 강에서 4천만 리터, 빗물 1억 7천 9백만 리터, 페니 오스만푸르 정수장에서 1억 5천만 리터, 모흐라 정수장 단계-02(할다 강)에서 9천만 리터, 해수 담수화를 활용하여 2억 리터를 생산하는 것이 포함.
 - 현재 EPZ를 포함한 대부분의 산업 지역은 물 1,000리터당 Tk37-Tk40에 이르는 비용이 발생. 이 지역의 상수도 공급이 비용이 많이 드는 프로젝트에 의존하기 때문에 BSMSN내의 공장들이 비용 상승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 CWASA AKM 파즐라라 청장은 차토그램市에서 정부보조금을 활용해 상업용수 1,000L당 Tk37의 물을 공급하고 있다고 언급.
 - 또한, 찬드푸르에서 BSMSN으로의 상수도 공급은 PPP 모델을 따를 것이며, 정부보조금 없이, 수도 가격을 책정할 것이라고 밝힘.
- ⇒ BEZA와 CWASA의 용수가격에 대한 입장차이 있음.

□ 공동 자금 지원을 둘러싼 논쟁, 48억 달러 프로젝트 지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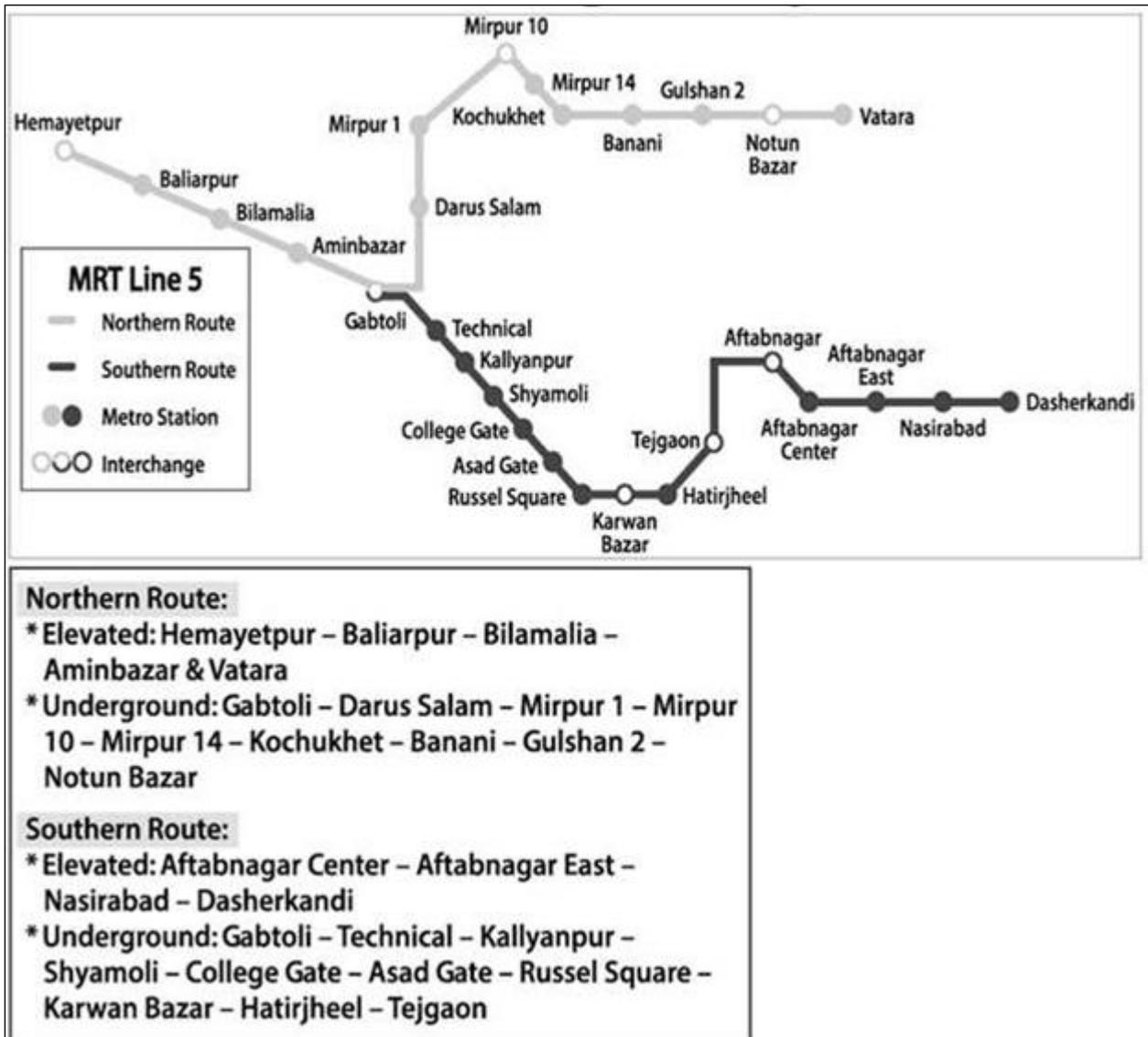
- 공동 자금 조달을 둘러싼 두 정부 기관 간의 논쟁은 48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MRT-5 남부라인) 건설 공사를 탈선시키고 지연시킴.
- 정부는 미화 48억 달러 가운데 33억3천만 달러는 외부에서 동원하고 나머지는 공공 재원으로 조달할 계획으로, 집행기관인 DMTCL은 공동금융에 반대하며 아시아개발은행(ADB)을 유일한 외부금융자로 희망(ADB는 이미 이 프로젝트를 위해 22억 8천만 달러를 약속).
- 그러나 ERD는 한국이 금년 6월에 이미 EDCF 기금으로부터 1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의향서를 보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위한 공동 자금 조달을 선호. ERD는 한국의 대출이 금리가 훨씬 낮으므로 ADB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말함.

(ADB) 이자율 5.9% (SOFR(5.3pc), 스프레드 0.5%, 만기 금리 0.10%를 포함)거치 5년, 만기 15년 / (KEXIM) 이자율 0.01%에 불과. 거치기간 15년. 만기 40년,

- DMTCL의 주장 중에는 (a) ADB가 단독으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 하는 데 관심이 있음. (b) 한국 기술이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지 않음. (c) 공동 자금 프로젝트 관리의 어려움. (d) 다른 자금 조달자의 참여는 시행을 지연시킬 것. 등이 있음
- ERD는 이러한 주장을 배제했으며, 이후 ERD가 여러 개발 파트너와 접촉하기 시작하자 한국은 프로젝트 자금 지원에 동의하고 의향서를 발송.
- "이제, 만일 그들이 이 사업에서 제외된다면, 양국 관계 또한 긴장 될 수 있습니다"라고 ERD는 밝힘.
- 한국이 국제 표준 기술이 부족하다는 DMTCL 주장에 대해 ERD는 한국이 이미 싱가포르, 태국, 튀르키예, 말레이시아 및 기타 국가에 지하철을 건설했다고 맞받아쳤음. 공동 financed 프로젝트의 어려움과 지연에 대한 우려에 대해 ERD는 "많은 대형 프로젝트가 공동 financing을 통해 순조롭게 시행되고 있다"고 밝힘. 오히려 ADB의

단독 자금으로 시행되고 있는 많은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다며 "2022년에는 국내 ADB 프로젝트의 11%만이 제 시간에 시행되었다"고 덧붙이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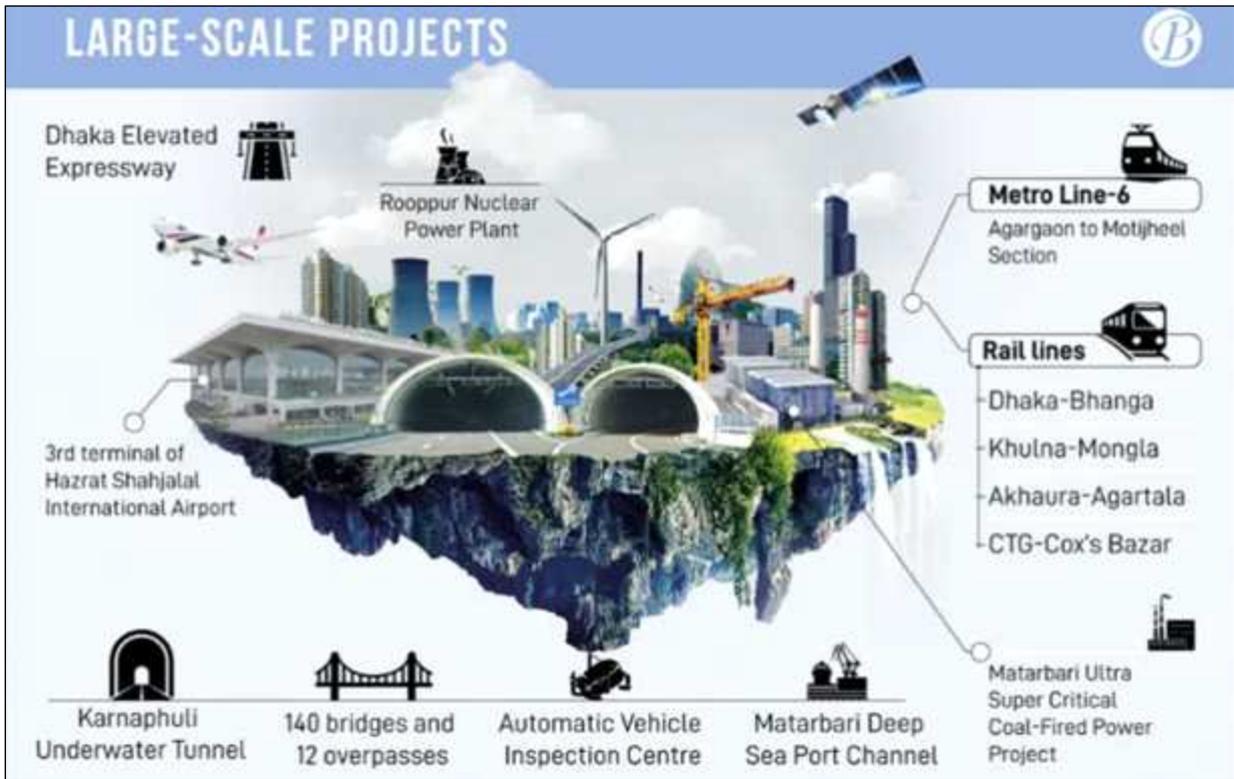
- 이 지하철 노선의 독특한 점은 갑틀리에서 아프타브나가르까지 11개 역이 지하화된다는 것. 그리고 아프타브나가르에서 다셰르칸디까지 나머지 4개 역은 고가화.



□ 선거를 앞두고 둔 대규모 프로젝트 개발

- 대규모 프로젝트로는 카르나폴리 수중 터널, 다카 고가 고속도로, 지하철 6호선(아가론에서 모티젤 구간), 다카-방가, 쿨나-몽글라, 아크하우라-아가르탈라, 채토그램-콕스 바자르 철도가 있으며, 하즈라트

샤할랄 국제공항, 마타르바리 석탄 화력 프로젝트, 마타르바리 심해 항구 채널, 룩푸르 원자력 발전소, 다리 140개, 고가도로 12개, 자동 차량 검사 센터(VIC)가 있음.



□ 베이 터미널, 2024년 115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 목표로 함

- 차토그램항은 기존 수용 능력의 6배에 달하는 수용 능력을 갖춘 베이 터미널 건설을 위해 2024년 115억 달러의 상당한 외국인 투자유치.
- 차토그램 항만청(CPA) 청장, 모하마드 소하일 해군 제독은 내년에 글로벌 항만 사업자들이 투자 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싱가포르 PSA와 두바이에 본사를 둔 DP월드가 각각 베이 터미널 1과 2에 투자할 것이라고 언급(총 4개의 터미널).
- 또한, 아부다비 항만그룹이 10억 달러 규모의 투자제안서*를 제출. (*차토그램항과 다목적 베이 3터미널 건설을 위한 합작투자를 위함.)
- CPA청장은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이 항구가 베이 4터미널을 가스 및 석유저장소로 지정할 계획을 밝힘.
- 현재 차토그램항에는 200m 길이의 선박이 입항할 수 없으나, 베이

터미널 개발을 통해 260m 길이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게 될 예정.

□ MRT-6역, 다음주 개통

- 다카 메트로는 MRT 6호선의 남은 카르완바자르 역과 샤바그 역을 다음 주에 개통할 계획.
- 앞서 DMTCL은 2022년 12월 29일 우타라에서 아가온까지 부분적으로 2개 역만 3시간 동안 운영을 개시. 2023년 5월까지 이 구간 내 9개 역을 순차적으로 개통. MRT-06의 모띠질까지의 운영은 당초 11월 5일 오전 7시 10분부터 오후 11시까지였음.

3. 재난상황 및 정치상황

□ 기업 부패도: 방글라데시, 남아시아 2위

- 2023년 뇌물 위험 지표에 따르면, 방글라데시는 올해 전 세계적으로 7단계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뇌물에 대한 높은 기대, 열악한 투명성 및 낮은 언론 자유로 인해 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아프가니스탄을 앞서며, 비즈니스 뇌물 위험 측면에서 현재 2위를 차지.
- 비즈니스 뇌물 위험 측면에서 방글라데시의 실적이 저조한 이유로 낮은 반뇌물 집행의 수준과 낮은 시민사회 참여도를 언급.

□ 야당의 대규모 선거운동, 1월 4일까지 전단 배포 계속될 것

- BNP는 총선을 앞두고 불매운동과 비협조 운동의 일환으로 1월 4일까지 사흘간 더 진행 중인 대규모 캠페인과 전단 배포를 이어갈 계획.
- BNP 대변인은 무함마드 유누스 교수가 노동법 위반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난. 다카의 노동법원은 어제 그라민 텔레콤 회장 겸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유누스 박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
- 아와미리그 오바이둘 퀴더 사무총장은 30일 "BNP가 선거를 막기 위한 모든 움직임을 실패한 뒤 이제 암살에 나설 것이라는 정보를

얻고 있다"고 밝힘.

- 반대로, BNP 대표는 민주평화운동 과정에서 야권 지지자 27명이 숨졌다고 주장하며 "누가 살해를 저질렀는가? 이제 이 사건들이 정부에 의해 계획된 것임이 입증됐다"고 말함.